



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 서울 동대문구에 급증한 유기 토끼, 구청이 '배후'였다

등록 :2020-06-30 09:59 수정 :2020-06-30 11:07

## [애니멀피플]

'구립 토끼장' 만들어 방치, 개체 수 5배 늘자 '무책임 분양'  
분양 직후 관내 유기토끼 늘어...“구민 복지 차원, 폐쇄 불가”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근린공원 내 토끼 사육장. 지난해 20마리였던 토끼들이 자체번식하며 개체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너무 많아, 좀 쉬어야 돼.” “온 산을 토끼굴로 파놓을라.”

토끼 사육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한 마디. 사육장 안에는 80여 마리의 토끼들이 웅기증기 모여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성인 주먹만 한 아기 토끼들이 꽤 많다는 점이었다. 얼추 헤아려도 10여 마리 이상이었다.

둘레길을 지나는 시민 셋 중 둘은 토끼 사육장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귀엽다'는 말을 연발하며 산책을 멈추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사육장을 처음 본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다. “토끼가 많네.” 6월28일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 내 토끼 사육장 앞 풍경이다.

## 방치로 개체 수 늘자 '무료분양'한 구청

서울 동대문구가 만든 이 토끼장은 관리 미흡으로 개체 수가 5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여름 지자체 예산으로 배봉산 둘레길에 토끼 사육장을 만들고, 토끼 20마리를 구매해 사육장을 조성했다. 당시 20마리로 시작한 토끼

는 1년 새 개체 수가 약 100여 마리로 늘었고, 늘어난 개체 수를 감당 못 한 동대문구는 지난달 사육장 토끼 23마리를 현장에서 즉석 무료분양했다.



지난 5월20일 동대문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토끼를 무료분양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은 페이스북을 통해 토끼 분양을 홍보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문제는 무료 분양 뒤 동대문구에서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채 발견된 토끼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동물권단체 하이와 토끼보호연대는 지난 11일 '배봉산 토끼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육장 토끼의 올바른 관리와 개체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토끼 무료분양 뒤 동대문구 내에서 모두 7마리의 유기 토끼가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기동물 공고를 보면, 분양 이틀 뒤인 5월22일 4마리가 한꺼번에 유기되었고, 이후 5월30일에 1마리, 6월2일에 2마리가 추가로 발생했다. 공고에 올라온 토끼와 분양 토끼들의 크기와 무늬가 흡사해 무료분양 뒤 유기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25</p> <p><b>접수일자</b> 2020-06-02</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암컷</p> <p><b>발견장소</b> 제기동 171-31..</p> <p><b>특징</b> 교분홍, 겁있음, ...</p> <p><b>상태</b> 공고중</p>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24</p> <p><b>접수일자</b> 2020-06-02</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암컷</p> <p><b>발견장소</b> 제기동 171-31..</p> <p><b>특징</b> 귀꿀살짝검정색, 코..</p> <p><b>상태</b> 종료(자연사)</p>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22</p> <p><b>접수일자</b> 2020-05-30</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암컷</p> <p><b>발견장소</b> 전농로168 인근</p> <p><b>특징</b> 털노보논듯, 사탕순..</p> <p><b>상태</b> 공고중</p>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10</p> <p><b>접수일자</b> 2020-05-22</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수컷</p> <p><b>발견장소</b> 황산로 93 제기동..</p> <p><b>특징</b> 교분홍, 전신오물오..</p> <p><b>상태</b> 종료(자연사)</p>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09</p> <p><b>접수일자</b> 2020-05-22</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암컷</p> <p><b>발견장소</b> 황산로 93 제기동..</p> <p><b>특징</b> 교분홍, 전신오물오..</p> <p><b>상태</b> 종료(자연사)</p>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08</p> <p><b>접수일자</b> 2020-05-22</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수컷</p> <p><b>발견장소</b> 황산로 93 제기동..</p> <p><b>특징</b> 교분홍, 전신오물오..</p> <p><b>상태</b> 종료(자연사)</p>
	<p><b>공고번호</b> 서울-동대문-2020-00107</p> <p><b>접수일자</b> 2020-05-22</p> <p><b>품종</b> 기타속종</p> <p><b>성별</b> 암컷</p> <p><b>발견장소</b> 황산로 93 제기동..</p> <p><b>특징</b> 세마리 함께 올, 전..</p> <p><b>상태</b> 종료(자연사)</p>		

동대문구의 토끼 분양 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유기유실 동물 가운데 동대문구 토끼 유기 현황. 조영수 대표는 “특히 지난 20일 분양된 토끼와 점선 안 토끼의 외모가 비슷한 점이 유기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이야기 했다.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이마저도 분양된 토끼 가운데 절반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애피와의 통화에서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공동대표는 “사태를 파악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분양한 토끼 23마리의 생존 여부와 분양정보 조사를 요청했다. 분양 뒤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이미 9마리가 폐사했다. 3마리는 파양 의사를 밝혀 다시 토끼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구청이 밝힌 20여 마리 외에 더 많은 토끼가 분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끼보호연대 최승희 활동가는 “구청을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은 20여 마리였는데, 현장방문 때 만난 사육장 담당 직원은 1차 분양 뒤에도 실제로는 분양이 더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두 70~80여 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분양자의 연락처만 받았을 뿐, 분양한 토끼들의 사진, 성별 등의 개체 정보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 20마리가 1년 만에 100마리 된 이유

배봉산 정상 근처 구릉에 조성된 토끼장은 10평 남짓한 공간이다. 초록색 그물망으로 둘러쳐진 사육장 안에는 토끼 집으로 마련된 나무 상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지붕으로 지어진 쉼터는 단 1곳뿐이었다. 토끼들은 유일한 지붕 아래 오밀조밀 모여앉아 있거나, 그릇이 안 보일 정도로 밥그릇 주변에 모여있었다.





토끼들은 유일한 지붕 아래 오밀조밀 모여앉아 있거나, 그릇이 안 보일 정도로 밥그릇 주변에 모여있었다. 동물권단체 하이 제공

어쩌다 토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걸까? 조영수 대표는 토끼의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육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토끼는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다. 한 달에 한 번 출산이 가능하며, 생후 4개월부터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성화하지 않고 암수를 같이 사육하면 금방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그동안 암수를 분리하거나, 중성화하지 않은 채 토끼들을 사육해 왔다.

토끼장 앞에 머무른 10분 남짓, 먹이를 두고 싸우거나 다른 토끼의 꿈무늬를 쫓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조 대표는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토끼들이 비좁은 사육장에서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와 영역 다툼으로 토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토끼는 한번 싸우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운다. 사육장 내에서 토끼 사체를 발견했다는 시민의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토끼는 임신기간이 1개월로 짧고, 생후 4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한 동물이다.

동대문구도 토끼 사육장 문제를 인정하고, 동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단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예산 한도에서 중성화수술 시행 △토끼 사육장 추가 설치 뒤 암수 분리사육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단체 쪽의 '토끼 수명이 다하면 점진적 폐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거리 제공 차원에서 작은 동물원으로 토끼 사육장을 만든 것이다. 조성한 지 아직 1년밖에 안됐는데 폐쇄를 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 “시민들의 불거리”...일정 개체 유지할 것

동물권단체가 '점진적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육장 내 동불복지와 개체관리 차원이다. 조영수 대표는 "반려 토끼의 수명이 9~10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아주 관리를 잘 받은 토끼의 경우다. 배봉산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서초구 몽마르뜨 공원의 유기 토끼들은 수명이 길어야 2년 정도였다. 길고양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제안은 중성화가 완료되면, 추가의 개체 투입을 멈추고 기존의 토끼를 잘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29일 현재 동대문구의 공식적 입장은 '폐쇄 불가'이며 추가 개체 투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60여 마리가 사육장 안에 있으니 일단 그 토끼들을 보살필 계획이다. 이후에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 추가로 구입해 일정 개체를 유지할 방안"이라고 답했다.

김지숙 기자 [suop@hani.co.kr](mailto:suop@hani.co.kr)

---

#### 관련기사

- 53마리 개들이 일렬로 누워 수술을 받은 사연
  - '이깁이 대란' 막을 길냥이 TNR...우리 동네 예산은 얼마?
  - 애완 토끼, 고통 속에 빨리 죽는다
  - 몽마르뜨공원은 왜 토끼 천국이 됐을까
  - '코로나 시대에 야생동물 시장이 왜 위험할까요?
-